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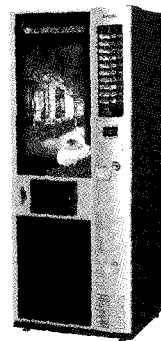


서울시 자치구별 커피자판기 설치 현황 분석

서울시 영업신고된 커피자판기 14,387대
영등포구가 866대로 가장 많아



서울시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동안 자판기 시장 통계는 연도별 제조 통계만 있었지, 필드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자판기들에 대한 공식력 있는 통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안심커피자판기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사청의 협조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별 자판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설치된 자판기는 총 14,387대이고 자치구 중에는 영등포구가 866대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적게 커피자판기가 설치된 자치구는 금천구로 279대에 불과했다. 기타 서울시 커피자판기 설치 현황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 지를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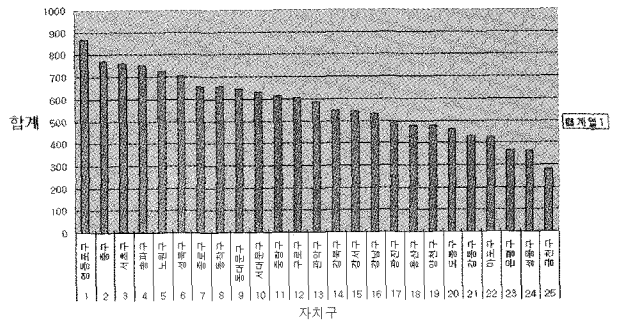


14,387대를 가지고 시장 포화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서울시 자치구별 커피자판기 설치 현황 자료는 순수하게 서울시에 영업신고가 된 자판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시에 대형 커피자판기가 불과 14,387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 서울시 자치구별 자판기 설치 현황

순 위	자치구	합 계
1	영등포구	866
2	중구	773
3	서초구	762
4	송파구	753
5	노원구	727
6	성북구	705
7	종로구	657
8	동작구	656
9	동대문구	645
10	서대문구	630
11	종량구	613
12	구로구	604
13	관악구	589
14	강북구	547
15	강서구	546
16	강남구	533
17	광진구	498
18	용산구	479
18	양천구	479
20	도봉구	460
21	강동구	431
22	마포구	427
23	은평구	365
24	성동구	363
25	금천구	279
총 계		14,387

■ 구별도표



실질적으로 미신고 된 커피자판기를 포함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량은 더 많아 질 것이다. 하지만 공신력 있게 그 수량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중고 오버홀 자판기가 갈수록 많이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신고된 커피자판기가 10,00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지의 조심스러운 예측이다.

어쨌든 서울에 영업신고된 커피자판기가 14,387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대이하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대도시 서울에 이 정도 수량밖에 안 된다는 점은 현재의 자판기 시장의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아무리 영업신고 자판기 기준이라 하더라도 불과 14,387대 보급만에 성장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좋은 쪽으로 해석해 아직은 시장이 널려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떨까? 커피자판기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면 새로운 시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 결코 자판기 산업이 14,387대의 수량 앞에 시장포화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산업계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되는가? 실추될 대로 실추된 시장을 딛고 일어나 커피자판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판기는 확실히 서민형 유통기기

이번 설치 현황 자료를 통해 영등포구가 866대로 가장 많은 커피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중구가 773대, 3위는 서초구가 762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4위는 송파구가 727대, 5위는 성

북구가 705대로 나타났다.

반면 커피자판기가 적게 설치된 하위 3구는 금천구, 성동구, 은평구였다. 최하위 금천구는 279대 설치로 1위인 영등포구에 비해 3.1배 수량이 적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성동구가 363대, 은평구 365대를 기록했다.

■ 자치구별 자판기 설치 현황 (대수)

연 번	자치구	합 계	그밖의 시설	다 중 이 용 시 설					
				계	관공서	지하철역	터미널	대학교	종합병원
1	종로구	657	525	132	49	30	-	42	11
2	중 구	773	666	107	40	49	-	10	8
3	용산구	479	362	117	12	52	-	28	25
4	성동구	363	323	40	17	13	-	3	7
5	광진구	498	322	176	59	19	12	65	21
6	동대문구	645	477	168	41	34	-	64	29
7	종량구	613	554	59	19	24	6	-	10
8	성북구	705	504	201	22	7	-	160	12
9	강북구	547	509	38	20	5	-	7	6
10	도봉구	460	414	46	38	6	-	-	2
11	노원구	727	597	130	27	23	-	62	18
12	은평구	365	313	52	25	11	-	-	16
13	서대문구	630	387	243	49	11	-	147	36
14	마포구	427	340	87	15	21	-	51	-
15	양천구	479	405	74	41	8	-	-	25
16	강서구	546	506	40	13	18	4	3	2
17	구로구	604	540	64	8	47	-	6	3
18	금천구	279	242	37	22	14	-	-	1
19	영등포구	866	785	81	56	12	-	-	13
20	동작구	656	506	150	47	22	-	60	21
21	관악구	589	469	120	30	5	-	77	8
22	서초구	762	542	220	108	14	34	47	17
23	강남구	533	442	91	43	31	-	1	16
24	송파구	753	647	106	61	25	-	-	20
25	강동구	431	359	72	21	18	-	-	33
총 계		14,387	11,736	2,651	883	519	56	833	360

이채로운 점이 있다면 소득수준 1위인 자치구 강남구에 533대의 커피자판기가 설치되어 전체 16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반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영등포구가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 자치구를 벗어나 다른 자치구를 보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강북의 자치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신흥구보다 자판기가 더 많이 설치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서 커피자판기가 부유층보다는 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무인유통기기라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영등포구가 1위를 차지하고, 강남구가 16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이 같은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다.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부자들보다 커피자판기를 더욱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판기보다 나은 환경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구지 자판기를 이용하려 하지 않은 게 보통이다.

또 돈을 버는 영업용기기로의 활용률 역시 서민이 더 많다는 사실도 유의 깊게 봐야 한다. 커피자판기로 동전장사를 하며, 돈을 버는 서민형 창업자가 부유한 자치구보다는 못사는 자치구에 더 많다.

강남구의 경우, 소위 '구멍가게'라 칭하는 소매점포의 비율이 영등포구나 기타 강북의 소득수준이 낮은 구에 비하면 많지 않다. 소매점포가 그간 서민형 자판기 창업의 타깃 로케이션이었다. 이 점이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커피자판기 비율을 나타내는 원인이다. 게다가 오피스 타운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도 많지 않다보니 강남구에 자판기가 별로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자체 소득 수준이 하위 2~3위하는 중랑구가 자판기 설치에 있어 11위를 기록한 부분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자판기는 서민이 많이 사는 자치구에 더욱 적합한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한창 진행되는 서울 각 자치구의 재개발과 재건축

이 자판기 시장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명문대 많은 서대문구가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자판기는 1위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자판기는 총 2,652대로 전체자판기의 18.4%를 차지한다.

다중이용시설이란 관공소, 지하철역, 터미널, 대학교, 종합병원 등 소위 알짜 로케이션들이다.

다중이용시설 내 자판기가 가장 많은 구는 서대문구로 243대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에서는 13위를 기록했지만 다중이용시설 내에서는 가장 많은 자판기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대학교 로케이션을 들 수 있다. 총 147대나 자판기가 설치되어 160대를 기록한 성북구를 빼놓고는 타 자치구를 압도한다. 이 같은 현상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의 명문대학교가 밀집한 구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다중이용시설 2위는 서초구로 220대의 커피자판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서초구에 다중이용시설 자판기가 많은 것은 관공소 로케이션 덕택이다. 서초구에는 법원 검찰청이 위치한 특성상 관공서 내 자판기가 108대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대학교 로케이션에서 160대로 1위를 기록한 성북구가 누계 201대로 3위를 기록했다. 성북구가 대학 로케이션에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국민대, 서경대 등의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 내 가장 자판기가 적은 자치구도 금천구로 37대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 지역에는 대학교에 설치된 자판기가 아예 없었고, 종합병원의 경우는 단 1대만이 설치되었다.